

태국 2020: 의심받는 ‘타이식 민주주의’와 정치과정의 변화

김흥구* · 이미지**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태국의 정치와 경제, 국제관계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태국은 민간정부 복귀를 달성한 지 금도 민주주의의 퇴보와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태국에서는 2014년 군사정권 돌입 후 5년 만에 민간정부 복귀를 위한 총선이 시행되었지만, 2020년 현재 태국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뿌라웃 정권이다. 2017년 헌법에 의해 이루어진 총리 선출이었기에 예측된 결과였다. 이에 반발하여 2020년 태국에서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전개되었다. 학생들의 요구는 단순히 총리사임과 헌법 개정을 넘어서, 전례 없던 왕실개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 근원에는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군부의 쿠데타와 국왕의 승인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던 이른바 ‘타이식 민주주의’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태국정부는 이들에게 형법 112조(왕실모독죄)를 적용하여 압박하고 있지만, 태국정부와 시위대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정정불안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한편 태국정부는 2020년 3월부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코로나19 감염 봉쇄에 성공하는 등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상사태 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어, 이를 반정부 시위 탄압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었다. 2020년 태국 경제는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hongkoo@bufs.ac.kr

** 교신저자, 부산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조교수. leemiji@bufs.ac.kr

이후 22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국경 폐쇄 및 외국인 입국 금지 등의 방역조치는 관광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태국 경제에 매우 큰 타격을 입혔다. 태국정부의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5월부터 코로나19가 진정되자, 경제 활동이 개선되면서 3분기 이후 태국 경제는 회복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2021년 경기 회복 여부의 불투명성이 우려되고 있다.

주제어: 타이식 민주주의, 2020년 반정부 집회, 민주화 운동,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태국

I. 들어가는 말

2020년 현재 태국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2014년 군사쿠데타를 이끌었던 빠라웃 정권이다. 빠라웃 짬오차(Prayut Chan-o-cha) 총리 내각은 2019년 3월 24일 총선거를 거쳐 동년 7월에 출범했다. 이처럼 군사정권 돌입 후 5년이 지나서야 겨우 민간정부 복귀를 위한 총선이 이루어졌지만, 결과는 군부의 권력 장악이 지속되는 형태가 되었다. 군부가 작성한 2017년 헌법에 의해 이루어진 총리 선출이었기에 예측된 결과였다.¹⁾ 그렇기에 민간정부 이양을 달성한 지금도 태국은 여전히 민주주의의 훼손과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글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태국의 정치와 경제, 국제관계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평가해보고자 한다.

1) 군부가 지명하는 상원 250명(2019년은 250석, 2024년 이후는 200석)도 총리선출에 참여 가능하게 했으며, 총리 자격 또한 하원의원 이외의 인물도 가능하게 했다. 상원(250의석)과 하원(500의석) 합쳐 과반수로 총리를 선출하는데, 이미 군부가 표의 3분의 1을 확보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군부는 총선에 의해 결정되는 하원에서 단 25%(125석)만 획득하면 되는 것이다.

2020년 태국에서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집회는 2020년 2월 헌법재판소의 아나콧마이 당 해산명령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들어선 7월부터 본격화되었다. 이에 10월 태국정부는 5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긴급 조치를 취했지만, 집회는 오히려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이번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도시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태국의 청년층이다. 군부의 퇴진 및 의회 해산, 군사정권이 작성한 현행 헌법의 개정으로 시작된 이들의 요구는 현재 군주제 개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지금까지 태국 사회에서 왕실 개혁을 이렇게까지 전면적으로 내세워 요구한 전례는 없었기 때문에, 왕실 개혁에의 요구는 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들은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군부의 쿠데타와 국왕의 승인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는 이른바 ‘타이식 민주주의(쁘라차티빠따이 뱌프 타이, Prachathipatai beap thai)’에 강한 의심을 가지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태국정부는 이들에게 왕실모독죄에 해당하는 형법112조를 적용하여 압박하고 있다.

‘타이식 민주주의’는 그동안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박은홍(2018)은 “타이식 민주주의란 대중의 의사에 기반하는 민정보다는 ‘좋은 사람(콘디, Khon dee)’으로 얘기되는 영웅이 이끄는 훈장”이라고 정의하며, 이 타이식 민주주의에 의해 군부의 정치개입이 정당화되어 왔으며 뿌아웃 정부를 ‘짜릿모델’의 부활이라고 언급했다(박은홍 2018). 타이식 민주주의의 시작은 절대왕정 붕괴 후 약해진 국왕의 권위를 회복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짜릿 타나랏(Sarit Thanarat, 재임 1959-1963년) 정부로 부터였다. 이 타이식 민주주의란 서구에서 출발하여 발전해 온 민주주의 개념과는 상이한 태국 스타일의 민주주의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선거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닌 국왕의 신뢰를 받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군

부)에 의해 통치되는 방식으로서, 본래의 민주주의와는 모순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태국을 회고하는 이 글은 민간정부로서 발족한 빠라웃 정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정치 대립의 변화에 주목한다. 이번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전개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또 지금까지와는 어떻게 다른가? 2014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정치과정의 변화는 무엇인가? 태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본고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답해보고자 한다.

한편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태국 경제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 태국은 2020년 3월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국경을 폐쇄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전면 금지시키는 등 선제적 대응을 했다. 태국 경제에서 관광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결코 적지 않은 상황을 생각하면 매우 강력한 방역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활동의 제한은 즉시 경제침체로 나타났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봉쇄에 성과를 거둬으로써 2021년 경제회복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기대 받기도 했다. 2020년 연말에 태국 내 외국인노동자(미얀마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타격이 다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2020년 9월부터 태국은 주요 경제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태국은 이처럼 코로나19에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한 모범국가로 국내외에서 평가받은 것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코로나19를 시위대의 정치적 탄압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 글에서는 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의 명과 암에 대해서도 주목해 본다.

II. 태국 정치

1. '완전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격화하는 학생주도 반정부 집회

2020년 전국적으로 확대된 대규모 반정부 집회는 국내외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운동의 발생 배경은 무엇이며,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 그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번 운동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야당 아나콧마이당을 2020년 2월 정당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을 명령했다. 아나콧마이당은 민주화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2019년 총선을 통해 제 3당으로 급부상한, 군부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동당은 결국 강제 해산되었으며, 타나틴 쩡룽르영끼(Thanathon Juangroongruangkit) 당 대표 및 당 간부 16명의 참정권이 10년 동안 정지당했다(Newsclip.be 2020/03/09). 아나콧마이당의 타나틴 당 대표가 선거 활동 당시 소속당에 선거자금으로 약 1억 9천만 바트를 대출해준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대출이 아닌 개인 후원금이라고 판단하여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태국에서는 개인이 정당에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을 1년에 1천만 바트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 판단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日本經濟新聞 2019/12/11). 헌법재판소의 편중된 판결은 이번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06년과 2014년 탁실파 정당이 승리한 총선거를 무효 처리했으며, 2007년과 2008년에는 여당이었던 탁실파 정당을 선거위반으로 해산 명령한 바 있었다(今泉 2019: 5). 이처럼 태국에서는 2006년 이후 사법의 정치 개입, 특히 군부와와의 정치적 결탁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 2일에 헌법재판소가 빠라우트 총리의 군 관사 불법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이러한 주장에 더

욱 힘이 실리고 있다.²⁾

아나콧마이당의 강제 해산은 즉시 지지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가져왔으며 도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반정부 집회가 촉발됐다. 산발적으로 일어나던 시위는 그 후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른 태국정부의 비상사태선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춤했지만,³⁾ 7월에 대학 및 공립학교의 등교가 정상화되자 재개되었다. 이 때 시위대를 다시 집결시킨 계기가 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세계적 에너지 드링크 회사 레드불(Red Bull) 공동 창업주의 손자 워라웃 유윗타야(Vorayuth Yoovidhya)가 2012년에 뺑소니 사망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8년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국민들의 많은 공분을 샀다(The Guardian 2020/10/04). 다른 하나는 반정부 활동을 벌이던 완찰름 쏏삭싯(Wanchalearm Satsaksit)이 정부의 체포를 피해 도피 중이던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태국의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반정부 활동가의 납치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6월에 일어났다(George Wright & Issariya Praithongyaem 2020/07/02).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방콕을 중심으로 재집결된 시위대는 그 후 무서운 속도로 확대되었고 지방으로까지 확산되었다.

학생 등 청년층이 주도하고 있는 이번 반정부 집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후쿠토미(2020)에 의하면, 이번 집회는 기존과 비교했을 때 강력한 특정 지도자가 없으며, 비폭력과 평화를 중시하는 ‘문화적’ 운동이라는 것이다.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문화적 수단과 표현 방식들이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청년들은 일본 애니메이션 햄타로의 주제를 개사해 정

2) 야당은 빠라웃 총리가 전역 후에도 군 관사에 거주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공식 제소한 바 있었다(ASEAN Express 2020/12/03).

3) 오프라인 현장 집회는 중단되었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지속되었다.

부를 비판하고, K-POP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한다. 태국정부가 무력 통제에 사용하는 최루액을 섞은 고수압 물대포에는 노란색 고무오리 러버덕(Rubber Duck)으로 맞는다.⁴⁾ 특히 집회현장에서 많이 보이는 문화적 표현 중 하나로 세 손가락 사인이 있다. 검지와 중지, 약지를 펼쳐 드는 이 세 손가락 사인은 미국 영화 헝거게임(The Hunger Games) 시리즈에서 차용했다. 이 사인은 2014년 군부쿠데타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서 반정부운동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福富 2020/11/30). 인터넷에 능숙한 청년층이 다수로 구성된 이번 집회는 정보공유와 집결, 해산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SNS를 통해 해외에 태국의 상황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연합뉴스 2020/10/19).

이번 운동은 기본적으로는 2014년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현재까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군부에의 반발이다. 2019년 민간정부 복귀를 위한 총선거를 실시한 후에도 빠라웃 총리가 연임하게 되자, 여기에 반발한 시민들은 군부의 정치적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국회 해산과 총선거 실시, 2017년 헌법 개정을 원한다. 현행 헌법으로는 의회 해산만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군부 지명의 상원 250명이 총리 선출에 참여하기 때문에 의회가 해산해도 다시 여당의 인사가 총리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번 반정부 집회는 기존과 다르게 왕실개혁의 요구로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모든 관심이 군주제 개혁으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태국에서 국왕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금지에 가까웠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지금껏 전례 없던 왕실개혁까지 거론되

4) 태국 반정부 시위의 상징으로 부상한 노란색 고무오리 러버덕은 홍콩 경찰의 무력진압에 우산으로 맞선 홍콩시위와 그 모습이 비슷하며, 거기서 차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주영(2021)에 의하면, 이번 태국과 홍콩에서 일어난 사회운동의 주체인 청년 세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로 연대하며 지지하고 있다.

기 시작했을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현 국왕 개인의 자질 문제와 왕실과 군부와의 연계 움직임이 민주화 세력을 자극했다. 지금껏 태국에서 국왕에 대한 권력과 권위는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지해 온 측면이 크다. 특히 지금의 태국 왕실에 대한 권위는 그 대부분이 푸미폰 전 국왕 개인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경애로부터 탄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와치라롱껀 국왕은 선친과 같은 도덕성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독일 등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그 과정에서 도덕적이지 못한 사생활 문제가 함께 거론되면서 왕실에의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Pavin Chachavalpongpun 2020/05/15).⁵⁾

현행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왕을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때로는 국왕이 헌법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⁶⁾ 푸미폰 전 국왕이 그러했다. 약 70년간 재위했던 푸미폰 전 국왕은 도덕적이고 친근한 국왕,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왕으로서 국민 다수에게 절대적 존경을 받았다. 이러한 국민의 존경을 바탕으로 과거 푸미폰 국왕이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한 사건이 크게 두 번 있었다. 군사정권과 학생이 맞선 1973년 10월 학생혁명과 1992년 5월 민중과 군부가 대립하여 발생한 유혈사태가 그것이다. 푸미폰 전 국왕은 이때에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의 편에 서서 사건을 수습했는데, 이 두 번의 사건을 계기로 ‘국민과 민주주의의 보호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 민주주의의 수호자였던 푸미폰 국왕은 2006년

5) 와치라롱껀 국왕에 대한 비판과 폭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 운동으로도 전개되었다. 특히 트위터는 페이스북과 다르게 실명으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이번 온, 오프라인 운동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6) 국왕이 ‘정치 위의 존재’로서 헌법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태국 정치의 특징이다(Tongchai 2008).

탁썬 총리를 몰아내기 위해 일어난 쿠데타에서는 군부의 편에 서게 된다. 민주주의의 수호도 왕실의 정치권력 유지를 위협하는 요소가 없을 때에 가능한 것이다. 아마도 탁썬이라는 태국 정치 역사상 전례 없던 강력한 총리의 등장이 왕당파에게 매우 큰 두려움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1990년대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정치 무대에서 표면적으로 퇴장해야 했던 군부에게 있어 2006년 쿠데타는 군이 다시 정치 개입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국왕이 군부쿠데타를 승인함으로써 군부의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국왕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탁썬정권과 국왕의 대립이라는 정치적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왕에 의한 쿠데타의 승인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왕실과 군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태국에서 쿠데타는 정권을 획득하고 정권을 교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태국에서는 1932년 입헌군주제 도입 후 현 빼라웃 정권까지 총 19번의 쿠데타가 발생했으며, 그 중 13번의 쿠데타가 성공했다. 군부는 와치라롱꼰 국왕의 권력 강화를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해왔었다. 군부의 정치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 국왕이 섭정을 두지 않고 해외에 머물 수 있게 헌법을 수정하고, 왕실재산 관리의 권한을 국왕에게 부여했으며, 2019년 10월에는 국군 부대의 일부를 국왕의 부대로 이동한다는 내용⁸⁾의 긴급칙령을 선포한 바 있었다(김홍구·이미지 2020: 86-87).

군주제 개혁에 대한 요구가 나온 상황에서 빼라웃 총리는 군주제를 보호해야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사실 반정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들이 요구하는 군주제 개혁이란 군주제의 폐지를 의미

7) 1932년 6월 입헌혁명, 1933년 6월, 1947년 11월, 1948년 4월, 1951년 11월, 1957년 9월, 1958년 10월, 1971년 11월, 1976년 10월, 1977년 10월, 1991년 2월, 2006년 9월, 2014년 5월에 일어난 총 13번의 쿠데타가 성공했다(外山 2016: 71).

8) 제1, 제11 보병연대의 인사권 및 예산 권한을 왕실근위대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입헌군주제를 실현하지는 것이다. 태국은 1932년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왕실과 군이 밀접하게 결탁하여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태국은 헌법의 공포와 폐기를 반복하는 국가이다. 참고로 2017년 헌법은 태국에 있어 20번째 헌법이 되는데, 국왕의 권한은 1932년 입헌혁명 직후 공포된 인민당에 의한 1932년 잠정헌법에서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며,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수정되고 확대되어 왔다(外山 2016: 70). 가쓰오(2020)는 이번 왕실개혁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왕을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감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樋泉 2020/10/03). 즉 이번 왕실개혁에의 요구는 지금껏 정치 불안이 발생할 때마다 국왕이 개입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던 ‘타이식 민주주의’에의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군부의 정치 개입이 국왕의 쿠데타 승인에 의해 정당화되는 이러한 정치패턴을 개혁하지 않는 한, 완전한 민주주의에의 이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타마다(2013)에 따르면, ‘국왕이 원수인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1978년에 처음으로 헌법에 포함되었는데, 1991년 헌법에서 지금의 ‘국왕을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로 변경되었다. 이 표현에는 군주가 국가원수인 일반적인 입헌군주제가 아닌, 군주가 정치 헤게모니를 획득한다는 특수한 의미가 담겨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 ‘국왕을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가 1946년에 즉위한 푸미폰 전 국왕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기에 ‘푸미폰 체제’라고 명명했다. 이 푸미폰 체제는 민주정치와 친화성은 있지만 군주에게 상징 이상의 역할을 인정하기 때문에, 민주화와는 공존이 불가능함을 지적한다(玉田 2013: 19-21). 푸미폰 국왕의 부재에 따라 견고했던 군주제의 지위는 강하게 흔들리고 있다.

학생 시위대는 왕실개혁과 관련하여 2020년 8월 10일 ‘탐마삿과

시위 연합전선’이라는 이름으로 10가지 요구가 담긴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형법 112조(왕실모독죄)의 폐지, “누구도 왕을 고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헌법 제6조의 폐지, 2018년 왕실재산법과 왕의 자문기구 추밀원의 폐지, 왕에 의한 쿠데타 승인 금지 등의 10가지 요구가 담겨있다(Prachatai 2020/08/11).⁹⁾

쁘라윗 총리는 시위대가 요구하는 헌법 개정 에 대해서는 일부 논의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었지만, 그 외 총리사임 및 왕실개혁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태국정부는 이들 시위대에 대해 왕실모독죄를 적용하여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 2020년 10월 26일 독일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연설한 시위지도자 등 13명에게 왕실모독죄가 적용되어 1월 7일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Komchadluek 2021/01/07). 2021년 1월 현재 41명이 왕실모독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TV 2021/01/13).

2. 정치대립의 변화

사실 지금까지 태국에서 반복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정치적 혼란은 2001년에 탁싌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총리가 등장하면서 시작된 대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1년 총선으로 선출된 탁싌 전 총리는 4년 임기를 마치고도, 2005년 총선에서 하원 4분의 3을 획득하여 압승하면서 총리직을 연임하게 되었다. 이것은 태국 정치

9) 학생연맹의 왕실개혁과 관련된 10가지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헌법 6조의 폐지 ② 형법 112조의 폐지 ③ 2018년 왕실재산법의 폐지 ④ 왕실 예산 배정액을 국가 경제 여건에 맞게 삭감 ⑤ 국왕 직속 부대 및 추밀원 등 폐지 ⑥ 왕실에의 기부금 중단 ⑦ 국왕의 정치적 의견 표명 금지 ⑧ 군주제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신격화 교육 및 홍보 중단 ⑨ 군주제 비판을 이유로 관련 사망사건 및 행방불명 사건 조사 ⑩ 국왕의 쿠데타 승인 금지

역사 상 유례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에 탁썬 축출을 위한 쿠데타가 2006년에 발생했다. 탁썬 전 총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다수의 태국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은 확실하다. 2001년부터 2014년 쿠데타 발생 전까지 태국에서 이루어진 모든 총선에서 탁썬파 정당이 승리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군부는 강력한 힘을 가진 탁썬이 탄생한 배경이 헌법에 있다고 판단하고, 헌법 개정 작업에 공을 들이게 된다(今泉 2019: 3). 태국에서 가장 민주적이라고 불리는 헌법이 1997년 헌법이었는데, 바로 그 민주적 헌법으로 선출된 총리가 탁썬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군부에게 있어 본인들이 작성한 2007년 헌법은 실패였고, 2019년 선거를 승리로 이끈 2017년 헌법은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반탁썬파는 2006년 쿠데타 후 이루어진 2007년과 2011년 모든 선거에서 패배했다¹⁰⁾. 2011년 총선거에 의한 탁썬파의 재집권은 2014년 또 한 번의 쿠데타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혼란은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탁썬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과, 탁썬의 친서민 정책에 불만을 가진 반탁썬파의 대립이었다고 할 수 있다. 농촌 및 도시의 저소득층 등 태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층에 속한 사람들은 탁썬파로서, 도시 중간층과 기득권층에 속한 사람들은 반탁썬파로서 서로 대치했다. 태국은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도 지역 간 양극화 정도가 매우 큰 사회인데, 도시와 농촌 간의 극심한 빈부격차 및 불균형으로 인한 계층 간 대립이 탁썬파와 반탁썬파의 대립으로 표출된 것이다. 그동안 반탁썬파의 행보를 보면, 탁썬파를 이기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6년에는 군부의 쿠데타를 적극 지지했으며, 마침내는 군에 의한 장기간 정치 개입

10) 탁썬파 정당은 2001년, 2005년, 2007년, 2011년 이루어진 모든 총선에서 승리했다. 2006년과 2014년은 헌법재판소가 무효처리했지만, 이 두 번의 선거를 포함하면 6 번의 선거 모두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마저 용인하며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도 목인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정치과정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군부의 입장 변화이다.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태국에서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쇠퇴했던 군의 정치적 영향력은 2006년 쿠데타를 계기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2006년 쿠데타 당시만 해도 군부는 스스로가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정권임을 표명하며, 실제로도 1년 3개월 후에 민간정부에 정권을 이양했다(重富 2020: 4). 그러나 2014년 쿠데타는 달랐다. 군부의 통치는 5년에 달했으며, 총선 후의 행보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예전에는 민간이양 후 군부가 정치로부터 한발 물러났다면, 이번에는 군이 직접 군부계 정당을 창당하여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정치무대 전면에 등장했다는 것이다.

2019년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예상대로 탁실파 프어타이당은 농촌, 특히 북부와 동북부의 지지를 받았으며, 군부계 정당 팔랑쁘라차랏당은 도시 또는 중부에서 지지를 받았다. 여기서 기존의 탁실파 - 반탁실파라는 대립 구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바로 아나콧마이당이라는 신생 정당의 부상이었다. 아나콧마이당은 의회민주주의를 희망하는 방콕 중간층과 청년층에게 높은 지지를 받았다. 기존 탁실파에는 탁실파를 지지한다기 보다는, 군의 개입을 용인하는 반탁실파의 행동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重富 2020: 5-6). 즉 탁실파를 지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군부의 정치개입을 찬성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 아나콧마이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지지했다고 볼 수 있다. 아나콧마이당은 공신력 있는 야당으로서 탁실파 정당인 프어타이당보다도 반군부적 성향이 강하다. 국군부대의 일부를 국왕의 부대로 이동한다는 내용이 담긴 긴급칙령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것도 아나콧마이당이었다. 2020년 2월에 아나콧마이당이 강제해산되면서 81명의 하원 중 54명이 아나콧마이당의 이념을 이어받은 신당, 까우끌라이당(당 대표: 피타 림짜른랏[Pita

Limjaroenrat], 1981년생)을 창당하여 이적했다(酒向 2020: 5).

정당성이 부족한 현 빠라우트 정권에 대한 민심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소(NIDA: 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가 2020년 9월에 실시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지지율 1위와 2위 모두 야당으로 나타났다. 1위는 탁싸과 정당 프어타이당(19.4%)이었고, 2위는 정당범위반으로 2월에 해산한 아나콧마이당의 소속 의원들이 결성한 까우끌라이당(12.7%)이었다. 3위와 4위는 집권여당 팔랑쁘라차랏당(12.4%)과 민주당(7.4%)으로 각각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도 41.6%에 이르렀다(Newsclip.be 2020/09/28).¹¹⁾ 태국 국민의 과반이 현 정권의 퇴진 요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연합뉴스 2020/08/23).

한편 태국에서는 쿠데타 후 6년 만인 2020년 12월 20일에 76개도(Changwat, 쟁왓) 지방행정기구(PAO) 위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NNA ASIA 2020/12/22).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집권 여당에서 20개도, 야당 프어타이당에서 9개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한 아나콧마이당도 타나턴이 주축이 되어 후속 단체를 결성하여 다수의 후보자를 입후보했지만(每日新聞 2020/12/20), 자치단체장에서는 단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한 채 전패했다(日本經濟新聞 2020/12/21)¹²⁾. 타나턴은 지방선거의 실패원인과 관련해서 태국사회에서 여전히 민감한 군주제 개혁에 대한 단체의 견해가 선거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개혁과 변화를 원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Bangkok Post

11)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는 빠라우트 총리가 18.6%로 1위, 프어타이당의 여성 정치가 쑤다랏 궤유라판(Sudarut Keyuraphan)이 10.6%로 2위였다. 한편 총리에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답이 54.1%에 달했다.

12) 아나콧마이당은 42개도의 지방자치단체장과 52개도 지방의회의원 선출에 입후보했지만, 지방의회의원에서 18개도 55명만이 당선됐다.

2020/12/22).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왕실개혁은 태국사회 전반에서 아직까지는 민감한 문제이며, 야당 프어타이당마저 언급하기 조심스러워 하는 이슈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치적 문제 발생- 쿠데타- 국왕 승인- 헌법 폐지- 새 헌법 제정- 총선거 후 민간이양>과 같은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는 완전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달성은 불가능에 가깝다. 민주화로 가기 위한 앞으로의 여정은 그리 녹록치 않지만, 민의를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Ⅲ. 태국 경제와 국제관계

1. 코로나19와 태국 경제

2020년 태국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코로나19였다. 태국 중앙은행은 2020년 경제성장률을 -6.6%로 전망했다(Reuters 2021/01/09)¹³⁾. 이는 1997년 아시아경제위기 때의 -7.6%(1998년)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세에 해당한다. 빠라웃 정권은 2020년 3월 26일 코로나19의 감염방지를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2021년 1월 6일에 9차 연장을 발표함으로써, 국가비상사태 기간은 최초 발표일 2020년 3월 26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가 되었다. 물론 이번 발표는 2020년 12월 17일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른 조치였다. 원래 비상사태는 최초 선포일로부터 4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해가 바뀐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비상사태의 장기

13) 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1분기(1~3월) -2.0%, 2분기(4~6월) -12.1%, 3분기(7~9월) -6.4%로 나타났다(MUFG 2020b/12: 1).

화를 두고 일각에서는 태국정부가 반정부 세력을 억제하고 탄압하기 위해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렇다면 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은 실제로 방역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었으며, 태국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주요 수치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태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는 2020년 1월 13일에 최초로 보고되었다. 3월 중순이후 일일 확진자수가 200명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태국정부는 2020년 3월 26일 태국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야간시간(22:00-4:00) 외출금지, 쇼핑몰 영업 금지 및 오락시설 폐쇄, 외국인 입국금지와 국경 폐쇄 등 경제활동을 엄격히 규제한 방역조치를 강행했다. 특히 국경의 폐쇄 및 외국인 입국금지는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외국인 관광수입¹⁴⁾을 생각하면 매우 파격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경제활동 규제는 태국 경제에 즉시 타격을 입혔다. 수출과 공공투자, 개인소비, 관광 부문이 축소되면서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은 -12.1%로 폭락하여 아시아경제위기 이후 태국은 22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¹⁵⁾ 가계부채는 12년 만에 최고에 달했고, 고용시장은 위축했다. 태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절반은 해외수출이 차지하는데, 바트화 가치가 오르면서 직격타를 받았다. 달러 대비 바트화는 2020년 4월 이후 10.9%나 상승했다 (Reuters 2021/01/09). 이처럼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출시장에 바트화 강세까지 더해지면서 경쟁력을 상실해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태국 중앙은행은 바트화 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여러 대응책을 모색 중이지만 바트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14) 코로나 쇼크 이전의 2019년에는 약 4,000만 명의 외국인이 태국을 방문했다. 이들에 의한 지출은 GDP의 11.4%를 차지했다(Reuters 2021/01/09).

15) 2분기 수출은 전년대비 -17.7%, 수입은 -25%로 폭락했다(MUFG 2021: 4).

전망했다(한국금융 2020/12/01).

관광 분야는 외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에 의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직면했다. 특히 태국의 항공업계도 직격타를 맞았다. 국영기업이었던 타이항공은 만성적 적자 경영에 더해 코로나 쇼크까지 겹치면서 결국 6월에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¹⁶⁾. 타이항공의 최대주주인 태국 재무부는 파산 대신 법정관리를 통한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일부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타이항공의 법적지위를 국영기업에서 일반주식회사로 변경했다(Kotra 2020/11/24). 4월부터 운행을 중단했던 타이항공은 2020년 12월말부터 태국 국내선 방콕-치앙마이, 방콕-푸켓 노선을 취항하고 있다.

2020년 10월 1일부로 새로 취임한 태국중앙은행 세타풋 쏏티왓나르풋(Sethaput Suthiwartnarueput) 신임 총재는 동월 20일 첫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수는 2019년 약 4,000만 명에서 2020년에는 약 670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¹⁷⁾ 태국이 코로나 이전의 경제 상황으로 회복하는 데에는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그는 태국의 정치적 상황이 국내소비와 관광산업의 위축 등 태국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며 반정부 시위를 경계했다(MUFG 2020a: 3). 그러나 현 상황에서 반정부 집회 자체가 경제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태국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강력한 방역 조치와 함께 적극적인 경제 지원책을 펼쳐왔다. 기준금리를 기존의 1.25%에서 0.50%로 인하하고, 약 2조 5천억 바트를 투입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

16) 2018년에는 2억 6,724만 달러, 2019년에는 3억 9,261만 달러의 순손실을 보고했고, 2020년 6월 말 기준 총 109억 6,514만 달러의 채무 보고를 하는 등 만성 누적 적자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Kotra 2020/11/24).

17) 태국정부 관광청에 따르면,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로 인해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0명을 기록했으며, 관광이 재개된 10월에도 1,201명에 그쳤다.

을 실시했다(이재호 2020).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 침체가 컸지만, 감염상황이 빨리 진정되면서 경제가 효과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접한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코로나19의 감염 확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반대로 태국에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5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거의 제로를 유지하는 등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은 감염 봉쇄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朝日新聞 2020/07/20). 이에 따라 관광이 재개되는 등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桑田 2020: 2). 2020년 7월부터 일부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 데 이어 10월부터는 일반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도 재개되었다¹⁸⁾. 태국정부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특별관광비자(STV: Special Tourist Visa)를 마련하여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최장 270일간 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장기 체류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방역을 명분으로 2020년 3월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극적으로 줄어드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연장되었다. 과거 태국정부는 반정부 시위가 확산될 때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를 금지시켜왔다. 이처럼 태국에서 비상사태 선포는 반대파 세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명분이 부족한 비상사태의 연장은 코로나19를 시위대의 정치적 탄압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020년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은 -6.4%로 크게 개선되었다. 실제로 태국 중앙은행이 10월 30일 발표한 9월 주요 경제지표에 따르면 특히 개인소비, 민간투자 부문에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태국은 2021년 경제회복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주목받기도 했다(Michelle Jamrisko & Simon Flint 2020/12/17).

18) 비자 발급 및 코로나19 치료비가 보장되는 보험가입,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 14일 의무격리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가 다시금 불투명해졌다. 2020년 12월 중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시작되면서 향후 경제 회복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움직임 속에 태국에서도 그동안 잘 봉쇄했던 코로나19는 12월 19일 신규 확진자수 576명이 발생하면서 2차 확산이 일어났다.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2월 초에 정점을 찍었지만 감소세로 전환하여 2021년 2월 16일 기준 일일 확진자수는 72명, 총 확진자수 24,786명, 완치자 23,563명, 사망자 82명을 기록했다.¹⁹⁾ 태국정부는 현재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도, 2020년 10월부터 재개된 외국인 관광객 입국에 대한 허용은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회복세로 돌아선 경제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2. 국제관계 및 한태관계

2019년 태국이 총선을 실시함으로써 민간정부로 복귀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깊은 격려와 관심을 표명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은 채 1년이 되지 않아 다시 절망으로 바뀌었다. 2020년 2월 헌법재판소의 아나콧마이당에 대한 해당 판결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고조시켰다. 미국과 EU는 성명 발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해당 결정의 재고를 촉구했다.

태국정부의 반정부 시위대의 무력 제압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국제인권단체는 태국정부의 시위대에 대한 강경진압을 비난하며 평화적 시위에 대한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The Nation 2020/

19) <https://news.google.com/covid19/map?hl=ko&mid=%2Fm%2F06qd3&gl=KR&ceid=KR%3Ako> (접속일: 2021.02.19)

11/25). 유엔도 태국정부가 평화적 시위를 허용하고 체포된 시위자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United Nations Human Rights 2020/10/22). 이어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12월에 태국정부가 왕실모독죄를 악용해서 반정부 시위대를 제압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태국정부에 중단을 요구했으며, 더불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부합하도록 왕실모독죄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The Nation 2020/12/18). 미국 상원의원도 2020년 12월에 태국의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고 태국 내 평화적 집회와 언론의 자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을 통해 2017년 헌법의 비민주적 측면과 2019년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흠결, 아나콧마이당에 대한 해산결정이 불공정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The Nation 2020/12/04). 이에 태국 상원의원들은 즉시 미국 상원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비판하며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Bangkok Post 2020/12/08).

한편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태국 현지 언론에 ‘태국 민주화지지 성공회대 모임’의 연대활동이 소개되기도 했다(Prachatai 2020/11/15). 한국의 성공회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동 모임은 시위대의 진압에 사용되는 있는 한국산 물대포의 수출을 중단하고,²⁰⁾ 태국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국내 언론에서도 주목받았다(중앙일보 2020/11/28).

한국과 태국의 정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2020년 한태관계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태국은 아세안 제2의 경제대국이자 신남방정책 협력대상국으로서, 특히

20) 태국 경찰의 무력 사용 및 강경진압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시위대 진압에 사용된 고수압 물대포가 한국산임이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년 2019년에는 양국 정상에 서로 방문하는 등 외교적으로도 뜻깊은 한 해가 전개되었었다. 4차 산업 및 물관리, 스마트시티, 철도, EEC투자,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MOU가 체결되는 등 양국이 향후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가 더욱 아쉬움이 크다. 2020년부터 협력내용이 이행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했지만,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양국 간의 경제관계도 암울했다.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의 대 태국 5대 수출입 통계를 보면 수출은 전년 대비 -19.5%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7.0%를 기록했다(kotra 방콕무역관).

한국과 태국 모두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반대로 급속도로 성장한 분야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되는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시장이 그것이다. 일례로 태국에서는 게임 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ASEAN Express 2020/08/19). 포스트/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모색하고 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태국정부가 추진 중인 ‘타일랜드4.0’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IT 및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분야에 강한 우리에게도 코로나19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에 코트라 방콕 무역관에 스마트시티 협력센터가 설치되어,²¹⁾ 향후 한국 기업의 스마트시티 분야의 해외수출을 지원한다. 2019년에 코트라와 태국 디지털경제진흥원(DEPA),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태국 디지털 경제사회부는 스마트시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 첫 행사로 2020년 12월 16일 한국-태국 스마트시

21) 태국 외에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터키 등 4개국의 코트라 해외 무역관에 설치되었다.

티의 날(Thailand-Korea Smart City Day)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되어, 한때 양국의 13개 지자체, 관련 기관 및 기업에서 약 200명이 참석했다(이코노믹포스트 2020/12/17).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디지털경제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IV. 나가는 말

태국 중앙은행은 2021년 경제 성장률을 +3.2%로 예측했으며(Reuters 2021/01/09), 까씨콘 리서치 센터(Kasikorn Research Center)는 +2.6%로 예상했다. 이처럼 태국 경제는 2020년 하반기부터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변수는 있다. 특히 태국처럼 외수중심의 수출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계 경기의 회복 여부가 태국 경제를 크게 좌우할 것이다. 태국 경제를 지지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인 관광분야는 코로나19 이전의 상태(약 4,000만 명)로 회복하기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는 2021년 외국인 관광객 수를 500만 명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금 가장 큰 이슈인 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반정부 집회가 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정불안이 장기화되면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투자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다. 다만 2020년 연말부터 코로나19의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현장 집회는 주춤하지만, 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입헌혁명 후 태국의 정치과정을 돌아보면 다음과 같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 태국에서는 정치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왕이 성공여부를 승인한다. 쿠데타가 승인되면 헌법은 즉시 폐지되고, 잠정헌법 하에 군부에 의한 잠정정권이 들어서

새 헌법(영구헌법) 제정 작업에 돌입한다. 새 헌법이 완성되면 총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민간정부가 발족된다.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었다. 즉 쿠데타를 일으키는 군부와 쿠데타를 승인하는 국왕이 정치적 갈등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이 타이식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정치적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민주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그 민주적 방법이 바로 선거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선거와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타이식 민주주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푸미폰 국왕의 서거 후 왕권이 강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식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교토대학의 타마다(玉田) 교수에 의하면, 태국에서는 탁신정권 탄생 후 선거를 둘러싼 경쟁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다수의 표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아닌, 선거 실시 여부와 선거 결과 인정 여부에 대한 경쟁이었다. 군부가 2007년과 2017년 헌법을 공포 전에 전례 없던 국민투표에 부친 것도 이와 같은 ‘선거(실시 여부)’를 둘러싼 경쟁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나 군부로서는 비민주적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도 선거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²²⁾ 이처럼 타이식 민주주의는 많은 모순과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번 반정부 집회는 국왕이 정치에 관여하는 타이식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과 의심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군의 정치개입을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군과 왕실과의 밀접한 연계를 경계하고 국왕의 쿠데타 승인을 금지해야 한다. 이것이 완전한 의회민주주의의 실현을 원하는 청년층들이 왕실개혁을 외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현재 정부와 시위대의 주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장기화가 예상된다. 이처럼 지금 태국

22) 玉田芳史, “タイ情勢.” Japan National Press Club (JNPC) 기자회견. 2016/07/15.

정치는 민주화를 향한 절체절명의 변곡점에 놓여 있으며, 앞으로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들이 그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2020. 보도자료 “케이(K)-스마트시티 수주지원 총력 해외 4개국서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설치·운영.” 10월 13일.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603 (검색일: 2021.01.07)
- 김주영. 2021. “태국과 홍콩의 사회운동에서 청년세대의 연대 배경과 분기점.” 『전동연 이슈페이퍼』 10: 1-27.
- 김홍구·이미지. 2020. “태국 2019: 표면적 민간정부로의 복귀와 정치, 경제, 대외관계.” 『한국태국학회논총』 27(1): 75-111.
- 박은홍. 2018. “2017년 타이: ‘짜릿모델’의 부활과 타이식 민주주의.” 『동남아시아연구』 28(2): 213-247.
- 연합뉴스. 2020. “태국 국민 과반, 정권 퇴진 요구에 찬성.” 8월 23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3053600084> (검색일: 2021.01.10)
- _____. 2020. “태국 시위 “우리 무기는 SNS, 모이고 알린다”...‘홍콩 시위’ 차용.” 10월 19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9056300076> (검색일: 2021.01.02)
- 이재호. 2020. “태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과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ehyo29&logNo=222102169578&categoryNo=0&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검색일: 2021.01.07)
- 이코노믹포스트. 2020. “KOTRA, ‘한-태국 스마트시티의 날’ 개최.” 12월 17일. <http://www.economicpost.co.kr/18214> (검색일: 2021.01.08)
- 중앙일보. 2020. ““태국에 살수차 수출 중단하자”...태국에서 먼저 주

- 목받은 한국 대학생.” 11월 28일. <https://news.joins.com/article/23932160> (검색일: 2021.01.03)
- 한국경제TV. 2021. “코로나로 시위 중단 틈타…태국, 왕실모독죄 적용 ‘박차.’” 1월 13일.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KR20210113091500076> (검색일: 2021.01.13)
- 한국금융. 2020. “泰 중앙은행 바트화 강제 우려 표명하고 조치 발표했으나 당분간 강제 지속.” 12월 1일. https://cnews.ftimes.com/html/view.php?ud=202012010816102238d94729ce13_18 (검색일: 2021.01.13)
- 코트라(kotra). 2020.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태국 항공산업.” 11월 24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5974> (검색일: 2021.01.10)
- 코트라(kotra) 방콕무역관. 2020년 8월 거시경제 동향.
- 朝日新聞. 2020. “『コロナに救われてる』民政復歸1年のタイ、經濟に課題.” July 20. <https://www.asahi.com/articles/ASN7M4Q4PN7HUHBI00V.html> (검색일: 2020.09.29)
- 今泉慎也. 2019. “2017 年憲法の議會・選舉制度からの檢討.” 『IDE 스퀘어』日本貿易振興機構アジア經濟研究所.
- 桑田始. 2020. “コロナ禍でのタイ經濟の現状.” 機械振興協會經濟研究所. <http://www.jspmi.or.jp/system/file/6/103/202010column01Kuwata.pdf> (검색일: 2021.01.07)
- 酒向浩二. 2020. “岐路に立たされるタイ式民主主義.” みずほ總合研究所. <https://www.mizuho-ri.co.jp/publication/research/pdf/insight/as201221.pdf> (검색일: 2021.01.03)
- 重富眞一. 2020. “續くタイの政治混亂 : あぶり出された眞の對立

- 軸.” 『IDE スクエア』 日本貿易振興機構アジア経済研究所.
- 玉田芳史. 2013. “民主化と抵抗——新局面に入ったタイの政治.” 『国際問題』 625: 18-30.
- 玉田芳史. 2016. “タイ情勢.” Japan National Press Club (JNPC) 기자회견(2016/07/15).
- 外山文子. 2016. “タイ立憲君主制とは何か— 副署からの一考察 —.” 『タイ研究』 16: 61-80.
- 日本経済新聞. 2019. “タイ選管、反軍野党の解散申し立てへ.” December 11.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053247200R11C19A2EAF000>(검색일: 2020.12.24)
- 日本経済新聞. 2020. “タイ地方選、民主派野党系は首長選全敗.” December 21.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GS219RP0R21C20A2000000>(검색일: 2020.12.25)
- 樋泉克夫. 2020. “再び政治の季節に入ったタイ、今回は何が違うのか?.” *WEDGE Infinity* October 3. <https://wedge.ismedia.jp/articles/-/20950> (검색일: 2021.01.03)
- 福富渉. 2020. “先鋭化するタイ民主化デモの文化的側面。その歴史とネットワークを探る.” 美術手帖. November 30. https://bijutsutecho.com/magazine/insight/23153?fbclid=IwAR1yrwNHZ7f_4NZMNIk0UdBVt4ISNMIBxXtWNXKBkkeSpBEuda11116t2k#.X8TCzXiElk8.twitter (검색일: 2020.12. 27)
- 毎日新聞. 2020. “タイ地方選、野党攻勢 若者から支持 きょう投開票.” December 20. <https://mainichi.jp/articles/20201220/ddm/007/030/094000c> (검색일: 2021.01.03)
- ASEAN Express. “태국 게임시장, 코로나19로 더욱 커졌네 ‘매출 200%’ 상승.” 2020/08/19. <https://www.aseanexpress.co.kr/news/article.html?no=4800> (접속일: 2021.01.10)

- _____. 2020. “총리직 상실 위기 벗어난 빠라웃 태국 총리…군 관사 불법사용건 승소.” 12월 3일. <https://www.aseanexpress.com/mobile/article.html?no=5654> (검색일: 2021.01.02)
- Bangkok Post. 2020. “Senators hit back at US criticisms.” 12월 8일.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032023/senators-hit-back-at-us-criticisms> (검색일: 2020.12.27)
- _____. 2020. “Progressive Movement ‘Sorry’ for Poll Failure.” 12월 22일.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039007/progressive-movement-sorry-for-poll-failure> (검색일: 2021.01.03)
- George Wright & Issariya Praithongyaem. 2020. “Wanchalearn Satsaksit: The Thai satirist abducted in broad daylight.” *BBC NEWS* July 02. <https://www.bbc.com/news/world-asia-53212932> (검색일: 2020.10.24)
- Michelle Jamrisko & Simon Flint. 2020. “China Lags as Thailand, Russia Rank Top Emerging Market Picks.” *Bloomberg* December 17. <https://www.bloomberg.com/graphics/2020-emerging-markets-recovery-ranking/?fbclid=IwAR3rtZM6tmog3X62R-xbBtr6xIsekSdLa-OSdJx5pbuMF17dn6c434kGaQ> (검색일: 2021.01.09)
- MUFG. 2020a. “MUFG Thailand Monthly 11月号.” 三菱UFJ銀行 経営企畫部 經濟調査室.
- _____. 2020b. “MUFG Thailand Monthly 12月号.” 三菱UFJ銀行 経営企畫部 經濟調査室. <https://www.bk.mufg.jp/report/hconwnew/B.pdf> (검색일: 2020.01.02)
- _____. 2021. “ASEAN・インド・豪州月報(2021年 1月、簡易版).” 三菱UFJ銀行 経営企畫部 經濟調査室. <https://www.bk.mufg>

- jp/report/eoasa2021/aseanindiaau_20210106.pdf (검색일: 2021.01.13)
- Newsclip.be. 2020a. “裁判所が解党のタイ民主派野党、55議員が新党.” March 9. <http://www.newsclip.be/article/2020/03/09/42084.html> (검색일: 2020.10.24)
- _____. 2020b. “タイ政党支持率 1、2位が野党.” September 28. <http://www.newsclip.be/article/2020/09/28/43352.html> (검색일: 2020.12.20)
- NNA ASIA. 2020. “タイでは20日、2014年のクーデター以降初めてとなる地方選挙が実施.” December 22. 12월 22일. <https://www.nna.jp/news/show/2133199> (검색일: 2020.12.27)
- Pavin Chachavalpongpun. 2020. “Why Thais are losing faith in the monarchy.” *The Washington Post* May 15.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0/05/15/why-thais-are-losing-faith-monarchy> (검색일: 2020.12.27)
- Reuters. 2021. “タイの景気回復に息切れ懸念、コロナ感染拡大対策で.” January 9. <https://jp.reuters.com/article/thailand-economy-idJPKBN29B0F3> (검색일: 2021.01.10)
- The Guardian. 2020. “Interpol issues ‘red notice’ for Thai Red Bull heir over fatal hit and run.” October 4.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oct/04/interpol-issues-red-notice-for-thai-red-bull-heir-over-fatal-hit-and-run-vorayuth-yoovidh-ya>(검색일: 2020/12/12)
- The Nation. 2020a. “OHCHR ‘shocked’ at lese majeste charges against child, urges change to law.” December 18.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30399832> (검색일: 2021.01.05)

- _____. 2020b. “US Senate resolution backs Thai pro-democracy movement, urges end to govt violence.” December 4.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30399119> (검색일: 2020.12.24)
- _____. 2021. “International rights groups urge Thai govt to respect right to peaceful protest, condemn violent crackdown.” November 25.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30398572?utm_source=category&utm_medium=internal_referral (검색일: 2021.01.03)
- Tongchai Winichakul. 2018. “Toppling Democracy.”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8(1): 11-37.
- United Nations Human Rights. 2020. “UN experts urge Thai government to allow peaceful protests and release unconditionally those arbitrarily detained.” October 22.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6408> (검색일: 2020.11.27)
- Komchadluek(คม ชัด ลึก). 2021. “13แกนนำมีอบพบตำรวจ.” July 1. <https://www.komchadluek.net/news/crime/454376> (검색일: 2021.01.08)
- Prachatai(ประชาไท). 2020a. “The demonstration at Thammasat proposes monarchy reform.” August 11. <https://prachatai.com/english/node/8709> (검색일: 2021.01.03)
- _____. 2020b. “เยาวชนเกาหลีออกแถลงการณ์ส่งกำลังใจให้นักเรียนนักศึกษาไทย.” November 15. <https://prachatai.com/journal/2020/11/90428> (검색일: 2021.01.06)

(2021.1.16. 투고, 2021.1.24. 심사, 2021.2.10. 게재확정)

<Abstract>

Thailand 2020:

Doubt about Thai-style Democracy and Changes in the
Political Process

KIM Hongkoo · LEE Miji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review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ai politics,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during the year of 2020. Thailand is still being criticized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ssue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ven after the transition to a civilian government. Although a general election was held to return to a civilian government after five years of military regime from 2014, it is still the Prayut regime that rules the country. This was predicted as the election of the prime minister was held by the 2017 Constitution. In response to this, large-scale anti-government protests, led by students yearning for democracy, were held in Thailand in 2020. Their demands went beyond the resignation of the prime minister and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extended to an unprecedented royal reform. This was caused by strong doubts about the so-called Thai-style democracy, where the election results were rejected, and the military coup and king's approval of the coup brought political stability. The Thai government is putting pressure on them by applying Article 112 of the Criminal Code

(the *lèse-majesté* law). As neither the Thai government nor the protesters are likely to narrow the disagreement, the protests seem to be prolonged. The Thai government has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since March 2020 and has been highly recognized for its successful containment of the COVID-19 outbreak. However, as the state of emergency extends, the government is being criticized for taking advantage of the pandemic to suppress anti-government protests. The Thai economy in 2020 recorded its worst in 22 years since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Its quarantine measures, such as the border closure and ban on entry of foreigners, in particular, wreaked havoc on its economy that is highly dependent on the tourism industry. As the pandemic began to subside in May as a result of the Thai government's preemptive and proactive measures, the Thai economy started to recovery after the third quarter with improved economic activity. As COVID-19 transmission became higher again in mid-December 2020, however, it seems uncertain if the economy will recover in 2021.

Key Words: Thai-Style Democracy, The Democracy Movement, COVID-19, The Emergency decree, Thailand